지역 소식통

김제 생활개선 읍면동 임원 능력배양 교육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지난 18일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생활개선 읍면동 임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개선 임원 능력배양 및 과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호원대학교 유은미 교수를 초빙해 실생활에서 색을 이용한 편안한 공간을 꾸미는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며, 과제교육으로 김제 녹색꽃향기 채은숙 강사로부터 나만의 개성 있는 손가방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 농촌진흥청 안전관리 전문위원인 고규근 강사로부터 여름철 야외 농작업자의 온열질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칙 실천을 배웠으며, 농작업을 하면서 틈틈이 물을 마시고 오전 10시 이후 강한 햇빛에서는 농사일을 삼가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온열질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을 배웠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달 중 준공 예정

완주군이 매년 증가하는 화물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완주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도비 보조를 받아 총사업비 17억여원을 투입해 이달 중 준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총 72대(대형 54대, 소형 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봉동읍 제내리 778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다.

봉동읍 제내리는 완주 테크노밸리 및 익산IC에 인접해 화물차들의 접근성이 좋고 봉동읍내 도심지와 떨어져 있어 화물차 불법주정차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과 안전사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8월 중 무료 임시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 정식 유료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그릇에 넘치도록 풍요롭게'

김제시, 10월 5~9일 개최
지평선축제 1차 추진상황 보고
환경 · 안전 등 지원계획 점검

김제시는 지난 18일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1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앞두고 지난 18일 1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로 이찬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행사지원, 환경, 교통, 안전 등 분야별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는 변화하는 관광객 수요를 반영해 농경문화를 재해석한 벽골제 짚신퍼레이드, 벼고을 풍년제, 벽골제LED 쥐불놀이 등 새로운 참여 프로그램으로 김제지평선축제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그릇에 넘치도록 풍요로운 '안다미로 지평선축제'라는 주제로 저렴한 가격에 고향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 가격 1만원 이하 제한, 표준가격제 운영 등 바가지요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김제만의 멋과 맛,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 청원의 역량을 결집해 김제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추억과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불편함 없이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는 황금들녘이 펼쳐지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벽골제 일원 및 시내권에서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서와! 이런 일탈은 처음이지?'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추진위 3차 회의… 추진상황 공유
10월 6일부터 3일동안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서 관광객 맞이

완주군이 제7대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지난 18일 열었다.

완주군이 제7대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지난 18일 열었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종합계획보고 및 추진상황 공유가 이뤄졌다.

추진위원회는 군의원, 문화·예술·음식 전문가, 완주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기업체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11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축제는 '더 와일드하게! 더 로컬푸드하게!'라는 비전과 '어서와!! 이런 일탈은 처음이지!!'라는 슬로건으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한번쯤의 일탈을 선물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자 위원들의 열띤 토의가 펼쳐졌다.

특히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트라이클라이밍, 시랑천 중심으로 한 와일드 놀이터 등 남녀노소가 온몸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더 와일드한 체험들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임필환 축제추진위원장은 "작년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더 와일드한 더 로컬푸드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11회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가 지속가능한 완주 대표축제 및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2011년에 시작돼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테마를 가진 특별한 축제라는 평을 받아왔으며 올해는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더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축제 로고송 공개

김제출신 작곡가 김성재 경복대 교수 재능 기부로

내달 7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김제자원순환 새로보미축제 홍보를 위한 로고송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로고송은 김제 출신 작곡가이자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인 김성재 교수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져 더욱 화재가 되고 있다.

김교수는 김제중학교와 덕암고를 졸업한 지역 출신 출향인이다. 평소 애향심이 투철한 김교수는 이번에 고향 김제에서 처음으로 새로보미축제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환경축제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고송 제작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교수가 작곡한 이번 로고송은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고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 비트와 단순한 가사의 매력을 갖고 있고, 밝고 쉬운 멜로디에 테크니컬한 비트감이 더해졌다.

정성주 시장은 "새로보미축제에 재능 기부로 함께해 주신 김교수의 고향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로고송을 통해 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적 가치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축제는 쓰레기도 분리배출하면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한다는 주제로 50여개 교육·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김제시가 주관하고 김제교육지원청이 후원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비래해충 흑명나방 번식기… 서둘러 방제해야

김제농기센터, 고품질 쌀 생산 위해 방제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6월 하순부터 7월 중하순에 걸쳐 중국에서 비래한 흑명나방이 8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번식 환경이 조장되어 흑명나방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포장을 잘 살펴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병해충 예찰 결과, 흑명나방 발생 면적이 전년대비 2~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해 관내 대부분의 논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가루쌀 생산단지, 2모작답, 질소과용답 중심으로 피해가 심하여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3세대가 출현하는 9월 중순경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흑명나방은 논을 살펴보아 포장에 피해 잎이 1~2개 정도 보이거나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유충 피해 증상이 보이면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며,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도열병 등을 동시에 방제해 노력과 방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은 "흑명나방 한마리당 80~90개의 알을 산란하는데 흑명나방 유충이 벼 잎을 갉아 먹으면 벼가 녹색을 잃고 하얗게 변색되어 출수가 불량해지고 등숙이 늦어지면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큰 피해를 주므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방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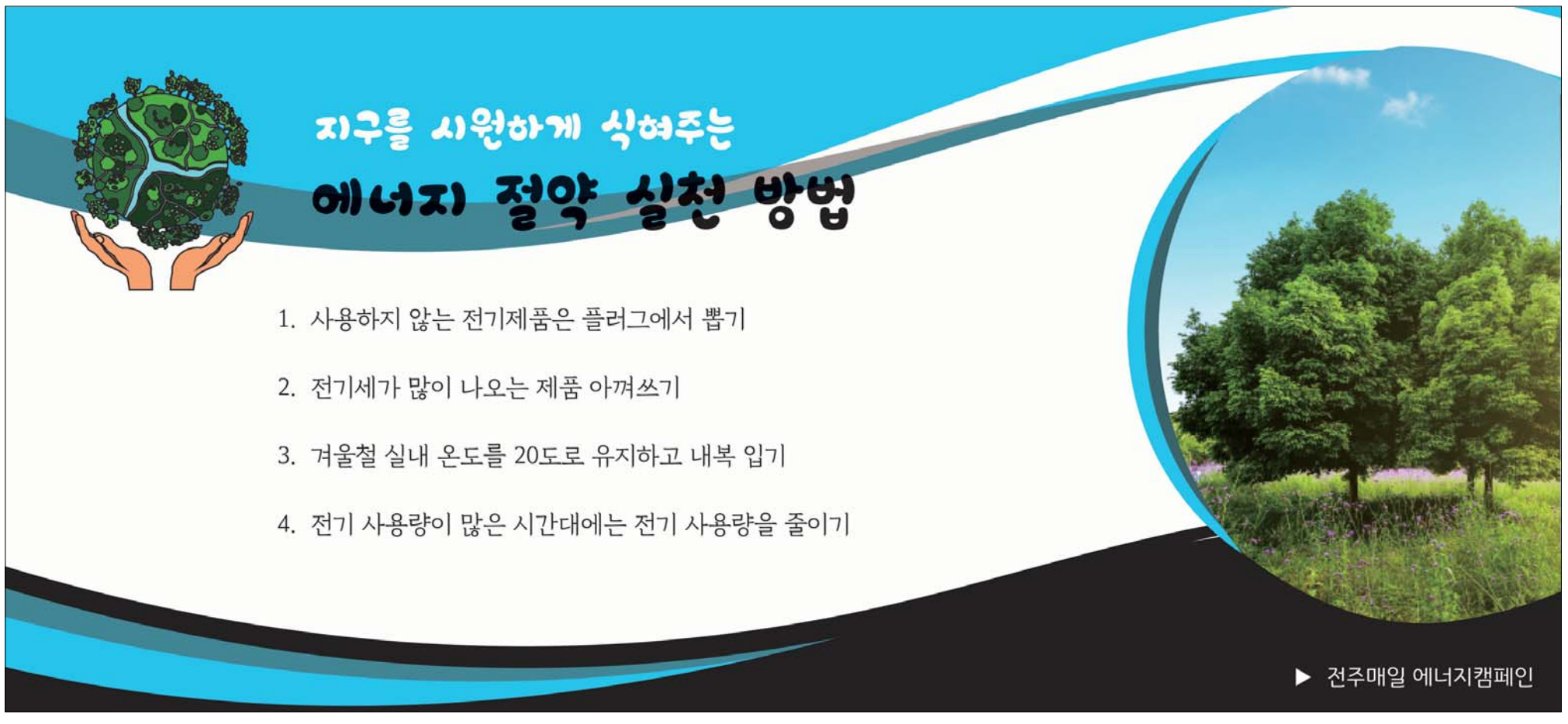
"맛좋은 가을감자 생산 위해 소독 · 건조 철저"

김제농기센터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8월에 정식 재배하는 노지 가을감자 재배 지도에 나서고 있다.

가을재배감자는 품종, 지역, 기상에 따라 파종시기가 차이가 있지만, 김제의 경우 8월 중순 전후로 정식을 하고 있다. 보통 감자의 재배기간이 90일에서 100일 정도인데 지역별로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하기 위해 8월 안에 감자심기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 8월에 심어도 재배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고, 휴면타파가 되지 않을 시 감자가 썩을 수 있어 휴면기간이 짧은 품종(추백, 대지, 고운 등)의 씨감자를 선택파종해야 한다.

가을감자는 감자눈을 기준으로 절단하여 심을 수 있으나, 8월은 덥고 습도가 높으며 언제든 비가 올 수 있어, 절단하여 심을경우 씨감자가 썩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30~60g의 씨감자라면 통으로 심어주는 것이 좋다. 농촌 진흥청의 연구결과 씨감자를 잘라 심을 때보다 통 씨감자로 심을 경우 파종 후 감자싹의 출현율이 높고 수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감자의 크기가 100g 이상이라면 2~4등분으로 30~40g으로 절단해 절단면을 소독하고 2~3일 상처치유(건조) 후 심는 것이 중요하다. /김제=곽노태기자